

이정후 MLB 3경기 만에 첫 홈런 '왕'

한국 선수로는 15번째... 3경기 연속 타점 기록 김하성 수비 활약 돋보였지만 타석에선 침묵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두 번째 타석까지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격수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벽을 뚫지 못했다. 하지만 세 번째 타석에서 타구를 외야로 보내며 3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더니 네 번째 타석에서는 빅리그 데뷔 첫 홈런을 작렬했다.

이정후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코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샌디에이고와의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2타점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가 3-1로 근소하게 앞선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샌디에이고 왼손 불펜 톰 코스그로브의 시속 125km 스윙퍼를 잡아당겼다. 타구는 시속 168km로 124m를 날아가 우중간 외야관중석에 안착했다.

이정후는 담담한 표정으로 다이아몬드를 돌았지만, 관중석에 앉아 아들이 MLB 첫 홈런을 치는 장면을 지켜 본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는 크게 웃었다.

지난달 29일 빅리그 데뷔전에서

3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린 이정후는 지난달 30일에는 첫 멀티 히트(5타수 2안타 1타점)를 달성했고, 이날은 홈런포까지 쏘아 올리며 바람몰이를 시작했다.

올해 빅리그에 진출한 이정후는 3경기에서 12타수 4안타(타율

0.333), 1홈런, 4타점으로 순항 중이다.

이정후가 마수걸이 아치를 그리면서 MLB에서 홈런을 친 한국인은 15명으로 늘었다.

추신수, 강정호, 최희섭, 최지민, 김하성, 이대호, 박병호, 김현수, 박효준, 박찬호, 류현진, 백차승, 황재균, 배지환이 이정후에 앞서서 손맛을 봤다.

5번 타자 유격수로 나선 김하성

은 이정후의 안타성 타구를 두 차례 걷어내는 등 '2023년 골드글러브 수상자'다운 호수비를 펼쳤지만, 타석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돌아섰다.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와 개막 2연전을 벌이고, 샌디에이고로 돌아와 본토 홈 개막 시리즈를 치르고 있는 김하성은 5경기에서 타율 0.167(18타수 3안타), 1타점, 2도루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 방문 경기, 8회초 우중간 담을 넘어가는 홈런을 친 뒤 낙구 지점을 확인하고 있다.

신임 제주도체육회 수석부회장 강동훈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수석부회장 강동훈(사진) 제주랜드카조합 이사장이 선임됐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새롭게 선임하고 경기력향상위원장 등을 추가로 위촉했다.

다음은 보선 임원명단.

▷수석부회장 강동훈(제주특별자치도랜드카조합 이사장) ▷부회장 강영철(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창용(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장) 고두산(전 제주특별자치도씨름협회 부회장) 오선홍(전 중등체육교사) 오영철(서귀포시축구협회장) 최숙희(제주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 부



회장) 허창범(서귀포시공도협회장)

▷이사 고호석(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부회장) 민경수(제주시배드민

턴협회장) 송기택(제주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 양순애(도도름 대표) 양창인(서귀포시17개읍면동체육회장협의회 회장) 이정의(제주특별자치도댄스스포츠연맹 수석부회장)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 오선홍(전 중등체육교사)

▷체육인 인권위원회 위원장 강남일(전 중등교장), 위영석(자

사격 오예진 국내 선발... 올림픽 출전

제주사격 '간판' 오예진(사진)이 압도적 실력을 과시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파리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다.

제주여상을 졸업하고 올해 기업은행에 입단한 오예진은 지난달 24일부터 경남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사격 대표선수 선발전 공기총에서 최종 파리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다.

오예진은 1-5차 선발전 결과 상위 점수 4개 선발전 합계 2332.5점(평균 578.95점)을 기록하며 2위 김예진(임실군청)과 큰



점수 차이로 따돌렸다.

오예진은 지난해 창원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으로 올림픽 쿼터를 획득한 바가

있다.

이와함께 파리올림픽에는 제주 여상 출신인 홍영옥 지도자가 여자 공기권총 국가대표 지도자로 출전할 예정이어서 스승과 제자가 동반 출전하게 됐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귀일·한라중-외도초 제주육상 강자 등극

귀일중과 한라중, 외도초가 교육감기 육상대회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교육감기 및 회장배 전도종별육상경기대회 겸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최종 선발전에서 남중부 귀일중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모두 9개의 메달(73점)을 따내 종합우승했다.

대회 3연패에 도전했던 위미중은 금1, 은5, 동2로 67점에 머물러 2위

에 그쳤고 서귀포 대신중(금3, 은1, 동1, 34점)은 3위에 올랐다.

대회 첫 출전한 여중부 한라중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모두 12개의 메달(117점)을 쓸어들리며 위미중(은6, 동1, 36점)과 신성여중(금3, 21점)을 꺾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초등부에서는 외도초가 남자부와 여자부 동반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남초부 외도초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9개의



지난달 30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교육감기 및 회장배 전도종별육상경기대회 겸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최종 선발전.

메달(70점)을 쏟아내며 신제주초(은3, 동4, 46점)와 효돈초(금1, 은1, 30점)를 각각 물리쳤다.

여초부 외도초도 금메달 5개, 은

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모두 9개 메달(66점)을 획득해 신제주초(금1, 은3, 동2, 44점)와 삼성초(금1, 은1, 동1, 32점)를 따돌렸다.

위영석기자

제주Utd 홈에서 시즌 첫 2연패 수렁

올 시즌 '홈 무패'를 선언한 제주유나이티드가 홈 경기 첫 패배와 함께 시즌 2연패에 빠졌다.

김학박 감독의 제주는 지난달 3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하나은행 K리그1 4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포항 정재희와 백성동에게 잇따라 골을 내주며 0-2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제주는 지난 3라운드 서울과의 패배에 이어 2연패에 빠졌고 두 번의 홈경기에서 1승1패

를 기록하게 됐다.

제주는 리그 성적 1승1무2패(승점 4)로 7위에 머물렀다.

경기 후 김학박 감독은 "홈팬들에게 실망스러운 경기를 보여줘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홈팬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경기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는 오는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을 상대로 2024 K리그1 5라운드를 치른다.

위영석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토론 초청 제1차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7:00 TV 유적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10:00 KBS 아침 뉴스타임 10:20 인강극장 스페셜 11:00 월화드라마 역살 한 번 집합시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세 번째 결혼(재) 8:30 TV 전국시대 9:20 우리 지역에 살아오 9:30 930 MBC 뉴스 9:5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초청1차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은아침 9:55 중계방송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8:00 딩동댕 유치원 8:50 로미오 프렌즈 9:20 자이언트 팬TV 10:30 한국전쟁 12:10 극한체험 13:00 EBS 평생학교 16:10 딩동댕 유치원 17:10 명탐정 피트 4 17:40 드래곤 길들이기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너 13:50 생활의 달인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제29회 KBS 119상 시상식 15:20 팔도방송(재) 16:00 시사간편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15 월화드라마 역살 한 번 집합시다(재) 13: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인일(재) 15:30 TV 유적원(재) 16:00 스투디오 K 17:10 세상을 모든 다큐	12:00 12 MBC 뉴스 12:25 이 맛에 산다 13:25 토닥토닥 꼬모 새로운 탐험 나는 내 운명(재) 13:55 2시 뉴스 워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다큐 M	12:00 SBS 12 뉴스 12:50 통상이론2 13:10 KCTV 다류스페셜 14:00 뉴스브리핑 16:00 국민맞수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보물지도	KCTV 8:30 뉴스멘터리 9:00 KCTV 뉴스 10:30 취미로 먹고산다 12:10 뉴스멘터리 13:10 KCTV 다류스페셜 15:10 일일 일수목 잡있는 그런 역사 17:00 KCTV 뉴스 18:00 낭만요 고향리 20:00 언저리공공영생기 특파워 20:10 KCTV 다류스페셜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봉규의 어반가요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7:30 저녁종합뉴스 18:00 한민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일

김홍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문서 계약안이 흥하니 중요사안은 다음을 기약하라. 48년 관재구설의 시끄러움이 들린다. 매사에 신중하라. 60년 돈 문제로 처가나 시댁과 다툼이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72년 자식 문제로 고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라. 84년 이성관계에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양보.

42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보증을 보류. 54년 나를 찾는 이가 있다는 자체가 행방이 될 수 있으니 초청 모임에 적극 응하라. 66년 남자는 만능의 감언이설로 신경을 쓰거나 조심해야 한다. 90년 화를 다스리는 지혜로 먼저 마음을 비우라.

37년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인생이 아름답다. 49년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할 필요성 있다. 61년 분실, 도난수가 있으니 문단속 주의, 부부금슬 적신호. 73년 업무의 성과가 미약하고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85년 친구나 동료와 의견대립이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라.

43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나의 행운이다. 55년 등이나 투자 문제로 주변 또는 친구와 의견을 나눠 볼 것. 67년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어 된다. 79년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결과를 가져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91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38년 자식의 일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으로 건강을 해하지 마라. 50년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거나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년 기계고장이나 업무의 하자도 자연이 된다. 74년 집안에 걱정이나 근심이 오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안부전화. 86년 무언가 새롭게 바뀌려고 마음이 동요.

44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 줄 것. 56년 부인의 배려가 있는가 하면 불화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68년 주어진 일은 마무리를 잘해야 이익이 있다. 80년 카운슬러-간호-한방 분야 종사자는 상사의 칭찬 또는 인정받는다. 92년 돈 문제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

39년 산 정상을 밟아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것이다. 51년 내일을 기약하는 지혜가 필요. 무리수 금지. 63년 활동력이 왕성해지고 분주하다. 도움을 요청하라. 75년 군중심리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냉정하고 철저한 본인관리가 요구. 87년 어디를가 떠나고 싶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45년 약속 지체 시 신뢰가 떨어진다. 57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직접 본인이 느껴야 한다. 69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것 같다. 81년 정보확용이 절실하다. 평생교육 현장을 통해 지식 습득이 필요. 93년 마음이 변장하고 어수선하다. 자신을 가꾸는 변화도 중요.

40년 강한 추진력이 결과를 얻는다. 밀어붙이는 파워의 승전보가 있다. 52년 매출이 증대되고 거래가 활발하다. 64년 물질적·정신적문제로 갈등이 생긴다. 직업으로 갈등은 불리. 76년 친정의 소식을 접하거나 여행, 외출을 한다. 88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41년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내가 아플수 있다. 53년 자식의 문제로 고민과 걱정을 한다. 과도한 종교는 자제. 65년 학군이 말에서 시작되니 언행에 신중하라. 작은 심수가 큰 후회를 만든다. 77년 이동, 변동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실에 충실하고 내일을 기약하라. 89년 종교는 사랑에서 시작됨을 알라.